

삼성, 중국서 LCD · PDP TV 1위

해외브랜드 시장점유율 1위 ... 현지기업 포함 2위로 Sony 앞질러

삼성전자의 LCD TV와 PDP TV 등 평판TV가 중국 시장에서 Sony나 Panasonic 등을 제치고 해외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.

시장조사기관인 GFK에 따르면, 삼성전자는 3월 중국 평판TV 시장(금액기준)에서 점유율 8.3%를 기록하면서 해외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.

현지기업을 포함한 순위에서는 현지기업인 하이센스가 점유율 11.1%로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가 2위였으며, 이어 Philips(7.5%), 창홍(7.1%), 스카이워스(6.5%), Panasonic(6.5%) 등의 순이었다.

특히, 삼성전자는 LCD TV 부문에서 2월 해외브랜드 가운데 Sony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3월에도 1위를 유지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.

3월 현지 LCD TV 시장의 기업별 점유율은 하이센스가 12.1%로 1위를 지켰고 이어 삼성전자(8.5%), TCL(7.6%) 등의 순이었다.

삼성전자는 3월부터 Beijing을 비롯한 5대 도시를 돌며 1개월여에 걸쳐 TV 로드쇼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.

또 4월 말에는 중국전자시상행업협회가 주관하는 중국 디지털TV 대상에서 <올해의 LCD TV>와 <올해의 DLP TV>로 선정되기도 했다.

앞서 삼성전자는 2월과 3월 등 2개월에 걸쳐 미국 평판TV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유럽지역에서는 LCD TV가 2005년과 2006년 1/4분기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한 바 있다. (서울=연합뉴스 김지훈 기자)
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5/23>